

가장 흔한 의약품 오·남용 사례 10가지

1. 우리 나라는 항생제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 나라다. 가벼운 감기 증상에도, 조그마한 염증에도 무조건 항생제(마이신)를 먹을 필요는 없다.

30세 남자 회사원이 손과 발, 그리고 성기 부분에 발생한 피부 질환으로 병원을 찾아왔다. 이 분의 증상은 최근 5일 전부터 감기 증상이 있어서 동네 약국에서 감기 약을 조제하여 복용한 후 하루만에 발생했다.

피부 질환은 타겟트 모양의 붉은 반점이었으며, 감기 약에 들어 있던 테트라사이클린의 부작용이었다. 감기에는 항생제를 복용할 이유가 없고, 흡기 호흡기 질환에 항생제를 복용한다고 허더라도 테트라사이클린은 부적당한 약이었다.

2. 관절이 아프거나 천식, 피부약, 안약, 심지어는 감기 약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스테로이드가 사용된다.

남모씨는 82세 남자로 평소 건강하고 활동적이었던 분이다. 육체

노동으로 근육이 발달하고 매일 아침 2시간 거리의 약수터에 가서 10Kg 짜리 물통에 물을 담아 들고 올 정도로 건장한 분이였다.

하지만 허리와 무릎에 만성 퇴행성 관절염이 있어서 자주 아픈 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그는 최근 5년간 시내 모 약국에서 관절염 약을 계속 복용해 왔다. 그는 아예 한번 가면 두 달치, 석 달치 약을 타 와서 많이 아플 때는 매일, 많이 안 아플 때는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복용했다.

그러던 어느날, 주말 농장의 풀을 뜯는다고 무리한 후 허리에 심한 통증이 생겨서 병원을 내원했다. 남모씨는 진찰 상 전형적인 쿠싱증후군(Cushing syndrome)을 보였는데,

얼굴은 달처럼 크고 둥글고, 피부는 매우 얇고, 사지는 가늘고, 배는 튀어나온 모습이었다.

그리고 뼈가 매우 약해져서 골다공증이 심하게 진행되었고 흉추 11번, 12번의 압박 골절이 있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장기 복용에 따른 부작용이었다.

3. 우리 나라 사람들은 조금만 머리가 아프다거나 근육이 쭈시고 치통이 생겼을 때 약국에서 쉽게 진통 소염제를 사서 먹는다.

진통제는 1가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효과가 없을 때는 다른 진통 소염제로 바꾸어야 하는데도 성급한 환자들은 여러 가지 진통 소염제를 한꺼번에 먹어 이가 운데 아무거나 효과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가지 약품을 쓰는 투망식 처방은 부작용만 증가시키므로 좋지 않다. 진통 소염제의 부작용은 위장 출혈, 신장 기능 장애, 출혈 경향 증가, 현기증 등 다양하며 심한 경우에는 위



장 출혈로 수술이 필요하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

4. 약국이나 의원을 찾는 환자 가운데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가장 많아 감기 약은 남용의 위험성이 가장 크다.

특히 감기는 특효약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기 증상의 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약물이 사용되기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이 야기되기도 한다. 콧물 감기에 사용되는 항 히스타민 제제나 진해 거담제에 포함되어 있는 코데인 또는 덱스트로메트로판 제제는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시키는 성분이다.

항 히스타민 성분은 졸음, 현기증, 운동 신경의 둔화, 주의력 산만 등을 유발하므로 과다 복용하면 안 되며, 운전 시, 기계 조작 시는 절대 금물이다. 진해제에 포함되어 있는 코데인은 마약성이나 중독성이 존재하므로 졸음이 올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5. 일단 피로하다고 생각하면 약국에 가서 '드링크제와 간장약'을 많이 사 먹는다.

그리고 매일 판피린이나 판콜 등의 진통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 대부분은 매일 먹지 않으면 '정신이 들지 않고 머리가 어지럽다'고 한다. 이러한 드링크제는 당장에 커다란 부작용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중독성을 가지며 검증되지 않은 성분이 여러

가지 섞여 있어 실제적으로 어떠한 성분이 체내에서 작용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위장 등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6. 다이어트 등으로 인해 변비가 지속되어 변비약을 장기 복용하게 되면 자율적으로 몸이 해

대장 운동이 감소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지만 거대 결장(megacolon)의 소견은 없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치료를 하지 않고 이 약만을 계속 복용하면 거대 결장이나 대장 무기력증(colonic inertia)으로 빠져서 대장을 모두 절제하고 인공 항문을 내야 하는 상태로 가게 된다.

이모양은 식이 요법, 운동 요법을 교육 받고 이를 잘 따르고 있으며, 최근에는 lactulose syrup으로 변비 증상이 좋아지고 있으며 이 약도 용량을 줄이고 있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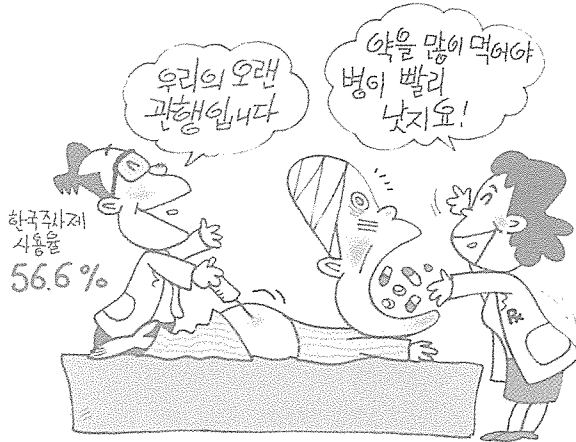
7. 혈압약이나 당뇨약, 그리고 심장

약 등 만성 질환성 약품은 임의로 바꾸거나 먹는 것을 중단하고 다른 약과 섞어 먹는 일이 빈번하다.

이런 일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오히려 만성 질환을 악화시킨다. 만성 질환의 경우 발병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임의로 남이 좋다는 약을 먹어서는 안된다.

8. 검증되지 않은 민간 처방이나 보약 등은 투약 기준이 명확히 서 있지 않고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고 의사나 약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배가 조금 아파도 소화제



결하지 못하고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대변을 볼 수 없게 된다.

20세의 이모양은 대학생이다. 이모양이 병원을 내원한 이유는 가장 강력한 변비 치료약 20알을 복용해도 대변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모양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따금 변비약을 복용했다.

여러 가지 변비약을 사용했었는데 최근 1년간은 가장 강력한 변비약 이외의 약은 듣지 않았다. 그러나 이 약도 처음에는 2~3일만 먹어도 대변을 볼 수 있었지만 점점 용량을 올려야 했고, 최근에는 16알 내지 20알을 복용해야 대변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복용해도 대변을 볼 수 없어 내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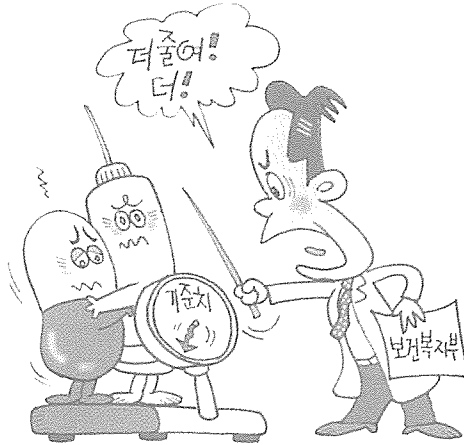
이모양은 진찰과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으며, 대장 조영술 검사에서

알약이나 드링크제를 쉽게 먹는다. 너무나 습관적으로 먹으니 조금만 거북해도 무분별하게 먹게 되고 이러한 행위가 자꾸 누적되어 만성 위장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55세 주부는 처녀 때부터 자주 소화가 안되는 증상을 갖고 있었다. 그때마다 동네 의원이나 약국에서 소화제를 처방 받았다. 5년 전에는 증상이 심해서 위 투시 검사를 받았는데, 만성 위염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최근 6개월간에는 소화 장애가 심해졌고, 약국에서 더 센 소화제를 요구하여 복용해 왔다. 이런 약으로 증상이 좋아질 때도 있었지만 증상의 호전이 별로 없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큰 고통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 오다가 최근 15일 동안은 위통이 심해지고 식욕이 없으며 체중도 현저히 감소되는 느낌이라서 병원을 찾아왔다.

이분은 내시경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위암 4기로 판정되었으며, 수술로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후 항암 요법을 3차례 받았으나 6개월 만에 사망했다.

10. 청소년들 가운데 환각을

목적으로 텍스트로 메트로판이 들어 있는 러미라나 루비킹과 같은 구하기 쉬운 기침약을 먹는 경우가 간혹 있다.

중독 되면 눈동자가 풀리고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고 얼굴

이 붉어 지고 목이 마르며 삼키기 힘들어지고 위장 장애, 혈압 상승, 고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한꺼번에 많은 양을 복용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그리고 환각제, 수면제, 항 우울제 등 약품의 남용 사례가 빈번한데 의사의 처방없이 구매했을 수 없는 제품이므로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처방없이 판매하는 약국에 한해서는 고발을 해야 한다. 72

소비자는 어떻게 하면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까?

- ① 올 7월부터는 의약품법이 실시된다. 의약품법이 실시되면 위험한 전문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할 수 있으므로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이 보호된다.
- ② 질병이 생겼을 경우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이 가장 필요하다. 임의로 유사한 증상에 이런 약이 좋다는 광고나 주위 말을 듣지 말고 의사와 상의하도록 한다.
- ③ 치료 원칙을 잘 지키도록 한다. 의사의 처방 원칙을 철저히 지켜 나가야 한다. 육안으로 보아 회복이 되었다거나 통증이 없어졌다고 해서 치료를 중단하거나 치료 간격을 무시하면 병은 재발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악화될 수 있다.
- ④ 남용 가능한 약물이 들어 있는 약의 사용을 되도록 피한다. 이를 위해 의사나 약사에게 약을 처방 받거나, 구입할 때 약의 내용에 대해 묻도록 하며 약의 설명서를 자세히 읽고 약사의 투약 지도를 받는다.
- ⑤ 의약품의 유효기간 및 설명서를 반드시 읽고 약과 함께 보관하는 습관을 갖는다. 유통 기간이 지난 의약품은 버리고 일약 등은 의약품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보관하고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도록 한다.
- ⑥ 의사 및 약사의 처방에 따른 약품을 복용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⑦ 임신할 가능성이 있고 임신을 기다리는 여성의 경우 무조건 약을 복용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임신 초기에는 가능한 한 약을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을 받도록 한다.
- ⑧ 자신의 체질이나 생활 양식, 그리고 병력 등을 상의하고 꾸준히 상담할 수 있는 단골 주치의를 선택하여 자신에게 맞는 의약품과 적절한 처방을 받도록 한다.